

III

남북교류협력의 심화

제1절 상생·번영의 남북교류협력

제2절 남북교역

제3절 남북경제협력사업

제4절 개성공단사업

제5절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간 교류협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5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 교역액 1조원 시대 개막, 남북간 왕래인원 9만명 시대 진입 등의 상징적 통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III

남북교류협력의 심화

남북간 교류협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5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 교역액 1조원 시대 개막, 남북간 왕래인원 9만 명 시대 진입 등의 상징적 통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대 경협사업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만명 돌파, 연간 30만명 관광 등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도로는 이미 차량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2만 8천평의 시범단지가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본단지 1단계(100만평) 1차 5만평 입주 가동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6·15 통일대축전과 8·15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새로운 교류모델을 창출하였다. 특히 8·15행사 기간중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는 남북간 냉전청산

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독도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고구려 유물 전시 및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등과 같은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의미있는 사업들이 남북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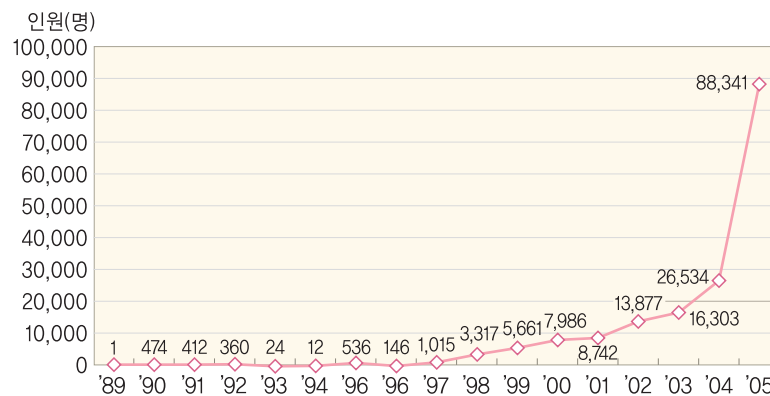
이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3대 경협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협과 SOC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서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절 상생·번영의 남북교류협력

1.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2005년 남북 왕래인원은 88,34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단이후 총 왕래인원 85,400명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04년 왕래인원 26,534명보다 229%가 증가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금강산 관광객은 2005년 6월을 기점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2005년 한해 298,247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 안정적 성장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남북 교역액은 10억5천만 달러로서 교역액 1조원 시대를 개막하였다.

민간의 대북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경수로와 개성공단 등 당국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도 민간 부문 대북투자 총액은 2억5,757만불에 이른다. 2005년에 투자된 금액은 4,456만불이다. 같은 해 남북경협사업 승인 건수는 82건, 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는 110건이다.

2. 평화조성에 기여하는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인 이유로 소강상태에 있을 때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쌀·비료지원은 2005년도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만kW 송전’ 제안은 난관에 부딪힌 6자회담을 타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공헌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은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DMZ 개방과 군사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 냈고, 서해 공동어로에 대한 남북간 협의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장애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경협사업을 위한 북한의 내부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

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

소(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

영 합의서가 채택되고, 10월에는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하여 남북간 직교역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남북경협사무소는 교역, 투자 알선, 면담 지원 및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 남북간 교역상당 및 거래를 지원할 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 상시 협회사무소 역할도 하고 있다. 남북경협협회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지역에 당국 차원의 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평가할 수 있다.

아직 남북경협은 남북간 내부 정세는 물론 대내외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협회사무소와 같은 경협의 제도화·법제화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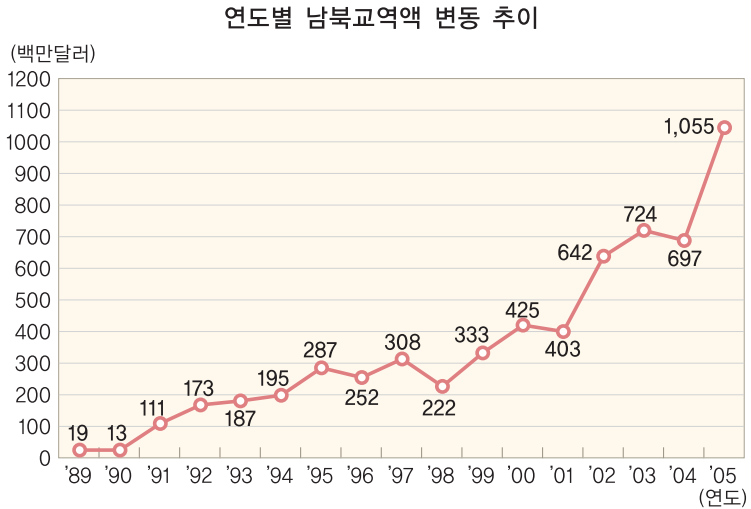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 2005년 남북교역은 2004년의 소폭 감소세에서 벗어나 51.5%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본격 건설 등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3억4,028만달러로 전년대비 31.8% 증가했고 반출 역시 개성공단 본격 건설, 금강산 관광시설 확충, 대북지원 등에 따라 7억1,547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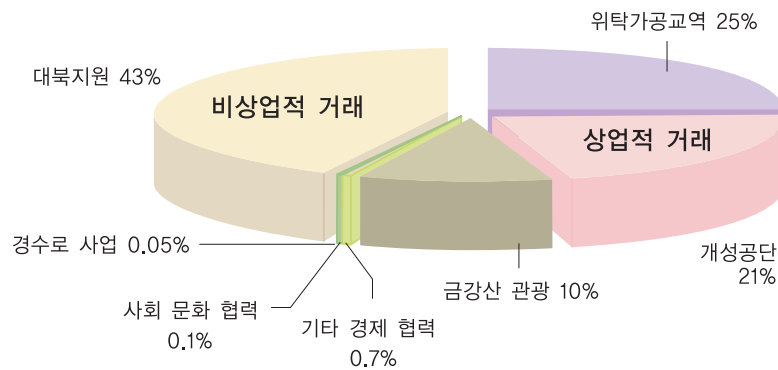
나. 유형별 남북교역 | 2005년도 상업적 거래는 6억8,954만달러로 전년대비 58% 증가, 전체 교역액의 65.3%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3억4,002만달러로 전년대비 31.7% 증가하였고, 반출도 3억4,953만달

러로 전년대비 95.8%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일반교역은 2억978만달러로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도 2억973만달러로 전년대비 19.2% 증가하였다. 그 밖에 개성공단 1억7,674만달러, 금강산관광 8,707만달러, 기타 경제협력 623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24%, 108.4%, 8.4%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 10억달러 시대 진입에 일조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3억6,621만달러로 전년대비 40.6%가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34.7%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은 78만달러, 경수로사업은 39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53.9%, 13.6% 감소하였으나 비료 및 식량 등의 대북지원은 3억6,504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41.3% 증가하였다.

2005년 남북교역 거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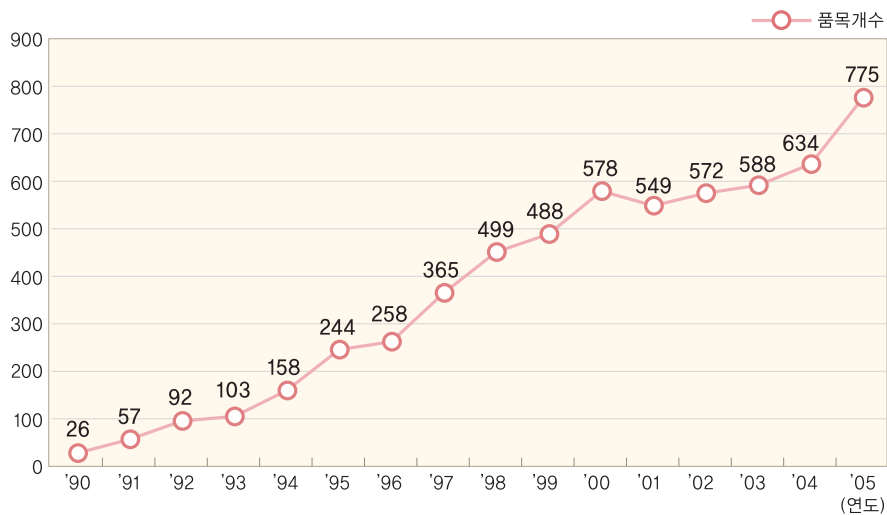
다. 남북간 교역수지 | 남북간 교역 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경협사업, 대북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남한이 1억4,018만달러 흑자이나 누적 실질수지는 20억6,205만달러 적자이다. 이러한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대북 지원 물품의 증가 때문이다. 실질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남북한 교역구조 |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0월 남북교역 기업에게 투자 알선 및 면담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성에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개소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총43건의 기업간 면담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남북경협협회사무소의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가동, 남북간 직접결제제도 마련 등의 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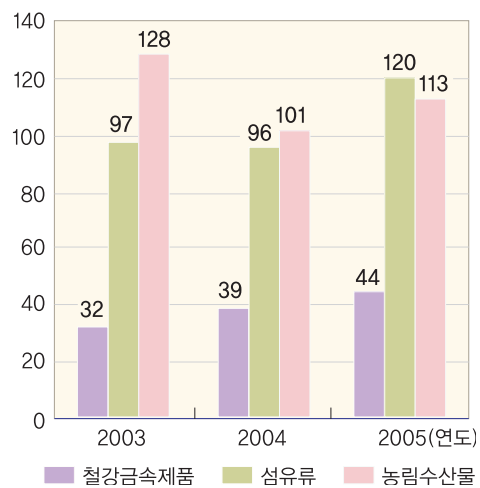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5년의 경우 반입 품목은 전년보다 179개, 반출 품목은 137개가 추가되어 총 755개로 증가했다.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에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35.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농림수산물 반입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된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개류·건조수산물·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철강·금속제품의 반입 비중은 13%이며 아연이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식량·비료 등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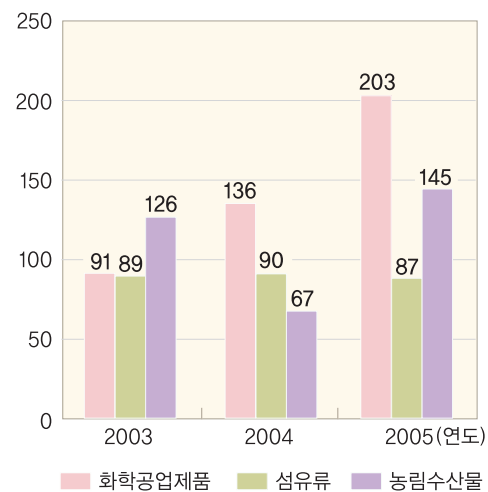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주요 반입품목 현황

(백만달러)



최근 3년간 주요 반출품목 현황

(백만달러)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화학공업제품(28.3%), 농림수산물(20.2%), 기계류(16.1%),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9.5%) 등의 순이다.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 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5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2억973만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TV·전화기 등 전기·전자제품과 가스라이터 등 일부 생활용품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교역액	0.8	7	26	46	74	79	71	100	129	125	171	185	176	210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단위 : 수)

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2000년 157개에서 2002년 108개로 급격한 감소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0년 6·15공동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교역에 대한 관심증대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하였지만 그 후 반출입 교역액 5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참여업체가 다시 확대되어 2005년 위탁가공 교역 참여업체수는 136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3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2004년 7월 이후 남북당국간 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북한이 남한 경제인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한동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남한기업인들의 평양 방문도 가능해짐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협력사업이 다시 활발히 추진되었다.

하반기 들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함께 남북경제협회의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 환경의 호전으로 2005년도에는 12건의 경제협력사업이 승인되어 1995년 첫 경제협력사업 승인 이후 가장 많은 승인실적을 기록하였다. 2005년도에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9건(개성공단 개발 관련 제외)으로 1992년 이후 2005년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총 71건,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총 42건에 이르게 되었다. 2005년 승인된 경제협력사업 12건 중 8건이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기존의 투자사업은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최초로 혈전증 치료제인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반입한 이래 2005년까지 48만 5,000달러 상당의 반제품을 반입해 왔으며, 앞으로는 반제품이 아닌 유로키나제 원액으로 전환하여 반입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 '휘파람' 115대 조립생산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657대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642대를 북한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

금강산샘물 사업을 추진해온 태창은 설봉호 운항중단으로 해상을

통한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25일 홍보용 샘플 15.7톤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총 63톤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반입하고, 금강산 현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월 25톤 정도의 샘플을 판매하는 등 사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평인터내셔널은 평양에서 생산된 포기 배추김치 시제품 14톤을 남포-인천간 해로를 통해 반입하였다. 한편 안동대마방직은 삼베 제조공장 건립용 설비·자재를 2005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반출한 후 10월 1일 평양에서 합영기업 창업식을 개최하였다. 대동무역도 강서청산수 생산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삼성전자는 11개 신규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비즈닷컴은 2001년 북한과 합영으로 중국 단동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 프로그램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춘흑연광산 개발사업은 200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말 현재 전기공사와 조경공사 등 막바지 공정이 진행중이며, 2006년 1/4분기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개성공단 제외)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상대자	지 역	금 액 (승인기준)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KH인터내셔널	새별총회사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	평양	—	'05.4.15
▲에스피메디텍 (용역개발)	조선컴퓨터센터 (KCC)	북한 특허기술 이용 의료기기 생산(뇌혈관지표측정기 개발)	서울	—	'04.9.17 ('05.5.26)
▲(주)스튜디오토 모로우	코스타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 (Hello Kitty)	평양	3.8만불	'05.6.1 ('05.6.1)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 입 · 판매	원산	15만불	'05.6.15 ('05.6.15)
▲현대아산(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개성관광사업 1회당 500명씩 시범관광 실시	개성	19.5만불	'03.3.18 (시범 '05.8.25)
▲(주)알티즌하이 텍(합작)	광명성총회사	CPT 개발 및 생산 · 판매	평양	10만불	'05.9.21 ('05.9.21)
▲(주)쓰리엔 테크놀로지(합작)	삼천리총회사	기계제품 생산 · 판매	평양	35억원	'05.10.14 ('05.12.27)
▲(주)대동무역	개선총회사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	남포시 강서구	250만불	'05.11.10 ('05.11.10)
▲(주)태림산업	개선총회사	석재 가공 및 판매	남 포 (룡강석산), 해 주 (수양석산)	295만불	'05.12.1 ('05.12.1)
▲(주)에머슨퍼시픽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금강산 골프 · 스파 리조트 건설 · 운영	금강산 관광지구	700억원	'05.12.9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언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2. 남북관광협력사업

남북관광협력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2003년 평양관광 실시, 2005년 개성·백두산 관광 합의 및 개성시범관광 실시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간 인적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탕이 되었다.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되고, 그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18일에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2년에 이르러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기의 무리한 투자로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통제된 ‘제한관광’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하고, 2002년 4월부터는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1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회담 등을 통해 육로관광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한편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관광상품을 다양화하였다. 현대아산은 또한 금강산호텔·골프장·옥류관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금강-설악 학생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총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 한해 동안 관광객이 30만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도 98년 관광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온정각-구룡연 구간 등의 도로를 포장하고 온정각-금강산호텔에 이르는 도로를 보수하였다.

금강산 지역을 남북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되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 학생 2만여명과 교사 1만6,500여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약 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5년도에는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관광협력이 개성·백두산·평양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7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백두산관광을 위한 사전답사와 시범관광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현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관광에 필요한 도로 포장용 자재 등을 북측에 지원하는 등 백두산 관광 실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갔다.

2005년 8월에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가 개성시범관광에 합의하고, 1,600여명에 이르는 우리 관광객이 고려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 개성지역을 둘러보았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평양관광도 재개되었다. 평화항공여행사는 2005년 10월에 1박2일의 평양관광을 실시하여 9회 총 1,280명의 관광객이 평양을 다녀오게 되었다.

2005년 한해 남북관광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현대아산의 내부 인사문제가 계기가 되어 현대-아태간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북한이 9월부터 금강산 관광객 수를 1일 6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금강산관광 7주년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시 정상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과제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현지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금강산 현지의 소방·치안 등 안전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산 특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오폐수 처리시설 등 인프라건설 지원문제도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광을 개성·백두산·평양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대북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1995년 쌀 15만톤을 지원한 이래 동포애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5년에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쌀 5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외국산 10만톤을 포함하

여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7월 1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억5,500만달러 범위이내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였다.

2005년 쌀 차관 합의서 주요내용

- 제공 규모 :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 차관단가 및 금액 : 톤당 미화 300달러, 1억5천5백만달러 범위내
- 차관 조건 : 10년거치 20년상환, 이자율 연1.0%
- 차관계약자 : (남) 한국수출입은행 (북) 조선무역은행
- 수송 방법 및 일정
 - 육로수송 10만톤(국내산), 해로수송 40만톤(국내산 30만톤, 외국산 10만톤)
 - 육로는 합의서 서명 이후 2주 이내, 해로는 7월중 첫 항차 출항
- 분배투명성 보장
 - 제공자 표기 : 포장에 '쌀', '40kg' '대한민국' 표기
 - 분배내역 통보 : 북측은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
 - 분배현장확인 : 매 10만톤 수송완료 시점에서 동·서해안 각각 2곳(총 20곳) 현장확인(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

2005년 7월 25일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간 차관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어 남한측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북한측은 청길무역회사가 양측의 인도·인수회사로 각각 선정되었다.

50만톤의 쌀 수송은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동·서해 육로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톤은 7월 26일부터 개성·고성지역으로 각각 7만5천톤과 2만5천톤을 수송하였다. 약 3개월이 소요된 육로수송 기간동안 4,500여명의 인원과 4,000여대의 트럭이 동·서 육로를 왕래하였다.



식량공급소에서 분배구를 통해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해로를 통해서도 국내산 30만톤과 외국산 10만톤이 수송되었다. 7월30일 1항차 출항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1월 7일 마지막 항차가 귀환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북측의 남포, 해주, 원산, 홍남, 청진 총 5개항이 수송항구로 이용되었다. 2005년 쌀 수송에는 북한 선박이 이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5년 쌀지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의해 국내산 쌀 2만톤이 수송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가 지원하는 쌀이 북한주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지원된 쌀의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통보받고, 남한측 인원이 쌀 분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매 10만톤 단위로 지역별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통보해왔으며, 2005년 9월 14일 개성과 고성지역에 대한 1차 분배현장확인을 시작으로 5차에 걸쳐 분배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개성·고성, 동서해안 등 총 20곳에 대한 분배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2000년 대북식량차관 제공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 4명이 쌀 분배현장을 직접 참관하기

도 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감사 표시하였고 쌀의 품질과 맛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국내산 10만톤을 육로로 수송함으로써 인도지원 물자, 교역 물자 등의 육로수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많은 북한주민들이 수송차량 행렬을 목격함에 따라 남한에서 쌀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민간 단체 관계자, 통일교육위원, 통일정책 모니터링단 등 민간인 63명이 인도인원으로 참여하여 북한실상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4.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추진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호혜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대북 지원성 협력에 치우쳐 있던 남북경협에서 탈피하여 남북의 자원과 자본·기술을 결합시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쌍방은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비롯 실무급 위원접촉 등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5년 12월말 현재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방식과 지하자원 개발의 구체적 협력방식 등에 대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가 체결되면 2006년부터 의복·신발·비누 원자재를 남한이 상업적 거래형태로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부족한 철, 아연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게 되면 국내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남북경협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나. 농업·임업협력 | 남북간 농업협력은 그동안 주로 민간차원의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남한의 통일농수산물사업단은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남한이 농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험모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당국차원에서는 농업협력을 위한 협의창구 개설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8월 1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남북한은 농업분야에서 시범농장의 조성 및 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협력,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의 추진과 임업분야에서는 양묘장 조성 등 산림녹화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목표하에 당국간 시범사업

의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접근성이 용이한 북한의 협동농장을 시범농장으로 선정하여 영농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현대적 종자 정선시설을 지원하고, 종합병해충 관리체계·농작물 생육예보체계 구축 등 우수 기술 교류를 통한 북한 농업의 과학화를 도모하며, 특용작물 분야 시범재배를 통한 상업적 계약재배의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임업분야에서는 한반도 산림자원의 확보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북한의 동·서부 양 지역에 각각 한 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등 당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임업 협력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및 남북관계 진전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업협력 | 우리 민족은 3면이 바다에 자리잡은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분단으로 인해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서해상에서는 2차례에 걸친 무력 충돌로 인해 남북한간 긴장이 그 어느 지역보다 고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남북한간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 제3국 불법 어로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 수산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북은 2005년 7월 27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몇가지 협력사업들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의 설정 및 이용, 서해에서 제3국 불법어선의 출입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우량품종의 공동개발·수산분야 기술교류 및 제3국 어장 공동진출 등이다

정부는 이미 합의한 남북공동어로, 제3국 불법어선 출입통제 등 서

해상 군사적 긴장완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간 수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산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해에서의 공동어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남북간 수산협력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양식장, 냉동냉장시설·활어집하장 등 부족한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갖출 수 있고, 남한 입장에서는 어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개성공단사업

1. 추진현황

2005년 들어 본격화된 시범단지 개발을 계기로 남한의 인원과 차량들이 비무장지대(DMZ)를 넘나드는 일은 이제 일상의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을 개방, 공단을 조성하고 단절되었던 도로를 열리게 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평화사업으로도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시범단지의 생산가동이 본격화에 오른 것 이외에도 남북간 단절되었던 전력이 다시 연결되고 전화가 개통된 것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간 경제협력 증진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에는 많은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

단계별 개발계획

총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총 2,000만평(65.7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단계별 개발계획 : 3차에 걸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100만평 규모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 2단계 :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 3단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분야의 유망업종을 유치, 복합 공업단지로 조성
1단계(100만평) 개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2,205억원 • 시 행 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을 확대해 나가는 작은 통일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은 북한의 실용주의적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시범단지에는 11개 기업이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2005년에 1단계 1차 5만평을 분양받은 24개 기업·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는 2006년에는 공업단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분야별 추진일지

구 분	추진 내용	일 자
사업자 조치	○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	2005. 3.16
	○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	2005. 8. 1
	○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5.12.28
북한측조치	○ 「회계규정」, 「기업채정규정」 제정·공포	2005. 7.15
	○ 「회계검증규정」 제정·공포	2005.10.28
	○ 관리위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2005.11.22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소 개소식	2005. 12.22
남북당국간 합의	○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	2005. 3.24
	○ 개성공업지구및금강산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발효	2005. 8. 1
	○ 개성공업지구통관·통신·검역 합의서 발효	2005. 8. 1
대내조치 및 주요동향	○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 완료	2005. 1.26
	○ KT 협력사업 승인	2005. 4.13
	○ 리빙아트 멕시코 첫 수출 행사	2005. 4.30
	○ 신원 준공식 행사 및 패션쇼 개최	2005. 5.26
	○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2005. 6. 3
	○ 로만손 협동화공장 준공식	2005. 8.11
	○ 대화연료펌프 공장 준공식	2005. 9. 6
	○ 주한 EU 상공회의소 개성 방문	2005.11. 2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협력사업 승인 시작	2005.11. 8
	○ 개성공단 통신장비 반출관련 미 상무부 허가 획득	2005.11.16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2005.12. 5

| 개성공단 개발 과정 |



1단계 부지 조성 전



1단계 부지 조성(2005년 11월 현재)



시험단지 조성 전



시험단지 조성 (1)



시험단지 조성 (2)



시험단지 조성 완료

2. 1단계 100만평 개발

가. 시범단지 조성 및 가동 | 2004년에는 시범단지에 (주)리빙아트 등 2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였고, 2005년에는 (주)신원, (주)로만손 등 9개 기업이 준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시범단지 분양을 받은 15개 기업중 2005년 12월말까지 생산 가동중인 기업은 총 11개 기업이고, 2개 기업은 공장가동 준비를, 2개 기업은 공장건축중에 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리빙아트는 개성공단 제품을 처음으로 해외수출을 하였고, (주)신원은 5월 26일 준공식과 함께 개성공장에서 남측 연예인이 출연하는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주)로만손은 8월 11일 첫 협동화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 생산가동중인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2005년 생산총액은 1,490만달러이며, 업종별로는 섬유 624만달러(45%), 금속기계 520만달러(35%), 화학 177만달러(12%) 등이다. 이중 해외수출은 중국, 호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87만달러이다.

나. 본단지 사업 추진

(1) 1차단지 5만평 분양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1월 관계 부처 협의 및 분양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 기준과 방법 등 70여만평(공공용지 제외)에 대한 분양계획을 확정하였다. 그중 1차로 5만평을 입주수요가 가장 많은 섬유·봉제·의복 및 가죽·가방·신발업종에 우선 분양하기 위하여 일반공장용지(3만 9,000평), 협동화단지(8,000평), 아파트형공장용지(4,000평)로 구분하여 2005년 8월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93개 업체가 신청하였다. 이중 일반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단지 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한국산업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단위 : 평, 억원)

업체명(대표)	업 종	분양면적 (건축면적)	투자 금액	승인일	준공일
부천공업(주)	전기공급, 제어장치	2,439 (850)	45	2004. 9. 8	2005. 7. 30
(주)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1,222 (590)	30		2005. 6. 30
(주)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1,221 (611)	50.8		2005. 6. 30
삼덕통상(주)	신발제조	2,439 (2,900)	49.6		2005. 7. 15
(주)태성산업	플라스틱 제품제조	2,439 (1,273)	60		2005. 8. 30
문창기업(주)	봉제의복	1,627 (761)	38		2005. 8. 10
용인전자(주)	전자부품	2,439 (1,134)	40		—
(주)리빙아트	기타 금속제품	999 (590)	45	2004. 9. 20	2004. 12. 15
(주)SJ테크	플라스틱 제품	1,626 (783)	40		2004. 12. 28
(주)신원	봉제의복	2,439 (693)	37.9		2005. 2. 28
(주)호산에이스	일반기계 제조	999 (583)	26		—
(주)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2,621 (1,417)	155.8	2004. 10. 19	2005. 8. 30
(주)TS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1,627 (654)	28		2005. 11. 10
(주)제시콤	통신, 방송장비 제조	1,778 (606)	43	2005. 1. 26	—
재영솔루텍(주)	기타 기계 제조	2,439 (821)	50		—